

블루종의 종류

블루종(blouson)은 허리 부분을 볼록하게 한 블라우스나 힙까지 오는 점퍼 형의 상의를 말하며, 헴(hem)은 밴드나 턱(tuck)으로 여미게 되어 있다. 블루종의 종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스펜서 블루종(spencer blouson) : 스펜서 재킷 스타일의 블루종으로 원래 스펜서 재킷은 허리길이 정도의 짧은 상의인데, 이처럼 허리 길이의 캐주얼한 블루종 스타일을 혼합한 것이 특징이다.

② 바펜 블루종(Wappen blouson) : 바펜을 원 포인트 마크로 적절한 위치에 배치한 블루종으로 바펜은 독일어로 문장이라는 뜻인데, 원래는 블레이저 코트의 가슴 포켓에 달았다. 1983년부터 유행하기 시작하여 스웨터와 블루종 등에도 달았는데, 이것을 바펜 룩(Wappen look) 또는 엠블럼 룩(emblem look)이라고 한다.

③ 블루종 코트(blouson coat) : 블루종 모양을 그대로 크고 길게 하여 코트로 디자인한 것이다. 단을 블루종처럼 밴드로 둥글게 조인다.

④ 블루종 재킷(blouson jacket) : 블루종인지 재킷인지 구별이 안 가는 짧은 길이의 상의이다. 이 두 가지의 특징을 잘 어울리게 혼합한 중간적인 아이템이라고 할 수 있다. 경쾌하게 입을 수 있는 옷으로 인기가 있다. 예를

들면, 속에 솜을 넣어 부풀린 실루엣으로 자카드 직물패턴을 곁들인 것 등이다.

⑤ 블루종 트윈 세트(blouson twin set) : 코팅된 코팅지로 만든 블루종을 중심으로 한 트윈 세트, 안감은 니트를 이용하고, 이 니트와 코디네이트된 스웨터를 조합해서 고급스럽게 보이도록 한 것이다.

⑥ 카디건 블루종(cardigan blouson) : 카디건 타입의 블루종으로 스포츠 톱스, 진즈 위에 가볍게 입기 위하여 만들어진 옷으로, 밑단이 블루종풍이라는 것이 특징이다.

⑦ 크롭 블루종(cropped blouson) : 보통보다 짧은 블루종. 블루종의 허리 부분을 조금 더 노출시켜서 패셔너블한 분위기로 연출하였다.

⑧ 포멀 셔츠 블루종(fomal shirt blouson) : 포멀한 장소에서 착용하는 블루종형의 셔츠. 보통 흰 실크 천으로 만들어져 드레이프를 갖게 하거나, 플리트(pleat)를 곁들이기도 하여 드레시한 분위기를 연출한다. 상의가 포멀한 느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검정 슬랙스를 입는 것만으로도 파티복이 될 수 있다.

⑨ 파카 블루종(parka blouson) : 파카형의 블루종으로 진즈 점퍼의 인기로 생겨난 변형의 일종이다. 블루종에 같은 옷감의 후드를 단 것이 특징이다. 진즈 점퍼와 달리 데님 소재에 한정하지 않고 다양한 소재로 만든다.

⑩ 피 블루종(pea blouson) : 피 코트(pea coat)에서 파생된 아이템으로 피 코트와 동일한 소재와 디자인으로 된 짧은 점퍼 타입의 블루종. 네이비 블루(navy blue)가 기본색이며, 소재로는 플란넬(flannel), 멜턴(melton), 블랭킷 울(blanket wool), 모서(mosser) 등의 두꺼운 울이 사용된다.